



Kang  
Okjoo

---

강옥주 Kang, Okjoo

1980년생으로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졸업 후 2010년에 동대학원에서 회화·판화전공을 졸업했다. 2012년 〈Objet O〉(갤러리룩스, 서울)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밖에 2005년 〈지성과 감성전〉(세종문화회관, 서울), 2006년 〈W.A.V.E. 국제 교류전〉(캠버웰, 영국), 〈아트 서울〉(예술의전당, 서울), 2008년 〈우리 안의 신화〉(토탈미술관, 서울), 〈IN-VISIBLE\_볼 수 없는 것의 징표들〉(모란갤러리,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www.okjoo-kang.com](http://www.okjoo-kang.com)

---

# 오브제에 비친 자화상

## 사물로 나를 말하다, 강옥주

작가의 작업실 한편에는 위아래로 사이좋게 두 개의 시계가 놓여 있다. 그중 저벽저벽 구둣발 소리를 내며 앞으로 걸어가는 시간은 단 하나. 약이 다했는지 똑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던 나머지 한 시계는 태엽을 감는 만큼만 움직인다고 했다. 속수무책으로 흐르는 현실의 시간과 달리 부여된 만큼만 흐르고 그것이 다하면 기꺼이 멈추는 것이다.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시간이 공존하는 풍경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멈춰버린 시간을 헤아리며 세심하게 기억의 태엽을 감고 있었다.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예술 작품이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예술을 하는 행위 역시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태엽 감기가 아니었을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 혹은 아픔 위에 멈춰버린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불러내어 함께 흐르도록, 흘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의 시계바늘은 유년시절에 멈춰 있었다. 맞벌이를 하던 부모 밑에서 외로움을 상대로 지루한 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의 눈망울이 아직도 그녀를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 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작가는 그림을 그려야 했다. 사실 미술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로, 그와 함께 깔깔대고 흑흑대는 사이 어느덧 어른이 되었다.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즈음 그녀의 손에는 여러 도구들이 들려있었다. 자신의 입이 되어줄 일종의 장비들이었다. 손에 쥘 것들이 무겁고 다양할수록 이야기는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 공구로 무장한 채 나무나 돌을 깎아댔다. 그러나 손에서 도구가 떠나면 다시 병어리가 됐다. 작가는 “벌거벗고 무인도에 떨어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래밭에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것으로 존재하고 표현하며 단순해지고 싶었어요”라며 두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장비들을 하나둘 내려놨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회화와 사진작업이다. 자신의 입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는 일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 꼭 다문 입술 사이로 훌쩍거리며 읊조리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라도 하나 둘 펼쳐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 나를 설명하는 물건들

마치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듯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빈 공간과 빈 캔버스를 채우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형상이나 그림으로



- Volvic, Archival pigment print, 117×77cm, 2011
- Moi, Archival pigment print, 117×72cm, 2011
- Memories, Archival pigment print, 58×58cm, 2011
- Simple, Archival pigment print, 58×58cm, 2011



애써 만들어놓고 보니 이미 세상에는  
 너무 많은 형상들이 아우성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또한 넘친다는 생각이 들자, 새로이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발견하기를 시도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했다. 일찍이 학부 시절부터  
 사진학원에 다니는 등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 후로는  
 책을 통해 부족한 이론을 채워 나갔다.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회화는 더하기'이고  
 '사진은 빼기'이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상들 중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줄 이미지를 프레임만큼 빼내는  
 것이다.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우려낸  
 이미지는 무엇이였을까. 첫 개인전에서 그녀가  
 선보인 이미지는 작업실에 있던 오브제였다.  
 아직도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작가는  
 그래서인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한없이 숨고 싶은  
 마음이 늘 공존한다고 고백했다. 그 마음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일까. 작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인  
 작품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셀프 포트레이트가 아닌, 오브제로 대체된  
 자화상이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을 때, 음식을 먹는게

곧 내가 되니 너는 좋은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항상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들이 결국 모두 나를 이루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작가가 오브제로 자신을 표현한  
 이유였다. 이어서 “어떤 물건을 보고 저 물건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종종 상상해요. 꼭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작업의 계기를 밝혔다.

### 기억을 담은 저장고

전시제목인 'objet o'는 자크 라캉의 주요 개념 중  
 'objet a'를 참고하여 지은 것이다. 'objet a'는 욕망을 작동시  
 키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며, 찾고 나면 해갈되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일종으로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강욱주의 'objet o'의 'o'는 'ordinaire'(평범한, 보통의),  
 'original'(독창적인, 본래의), 'ouvert'(열린, 열려있는) 등의  
 의미이지만 이밖에도 '욕주의 o' 등  
 다양한 의미가 따라 붙는다.  
 각각의 오브제들은 작가의 추억을 환기시키거나  
 내면 상태를 은유하는 것들이다. 가령 'Helpless I'은 한없이  
 무기력했던 지난날에 찍은 오브제이다. 병보다 길이가 짧은



- Helpless I, Archival pigment print, 58x58cm, 2011
- Absence, Archival pigment print, 58x87cm, 2011



손가락으로 허공만 휘적휘적 대다가 병 속에  
 손가락을 빠뜨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 한없는 무력감을  
 쉬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병 속에 갇힌 손가락의 모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밖에도 'Absence'라는 제목을 단 작품은 유년시절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통인형인 '마트로시카'를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워 놓고 엄마의 자리를 빈 공간으로  
 남겨둔 것이다. 엄마의 사랑이 늘 아쉬웠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빈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작가는 이처럼 오브제를 매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건넨다.

오랫동안 입이 아닌 수많은 입들로 자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작가는 아직도 목마름을 느낀다.  
 작품은 소통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려는 작은 노력이기도 하다.  
 그 앞에 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문득 자신의 기억을 발견하는지도 모른다.  
 기억이란 으레 무작위하고 무차별적인 것이므로,  
 어쩌면 그녀의 작품 속에 순서 없이 쌓인 프루스트의 '잃어버  
 린 시간을 찾아서' 역시 은연중에 이러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억의 내용은 공유할 수 없어도 그 기억을  
 담은 오브제는 비단 작가의 것만은 아닐 테니까. **MP**  
 글 | 현정아기자, 디자인 | 장준일기자